

최근 일용직 일자리의 구조변화와 원인

김복순 · 이규용*

I. 머리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일용직 일자리는 158천 개 사라졌다. 특히 2009년 11월 일용직 일자리는 1,931천 개로 전년동월대비 264천 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 일자리는 2006년 하반기부터 전년동기대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는 2009년의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하락폭이 더 커졌다. 특히 2010년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사정이 총량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근로자만 하락폭이 더 커졌다. 즉, 2010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7.8%를 기록함에 따라 총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32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2010년 4월에는 현재 400천 개나 증가하였다. 그런데 2010년 1/4분기에 일용직 일자리수는 전년동기대비 243천 개 감소하였으며, 이는 상용직 일자리수가 651천 개 증가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 1]은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변동과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수의 변동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는 다른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에 비해 경기변동에 가장 탄력적인 반응을 보여 왔으나 대략 2006년 하반기 이후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 일용직 노동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임금근로자 중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일용직 근로자가 경기침체에 우선적으로 고용이 감소하였고,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상용직이나 임시직의 고용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감소 규모는 더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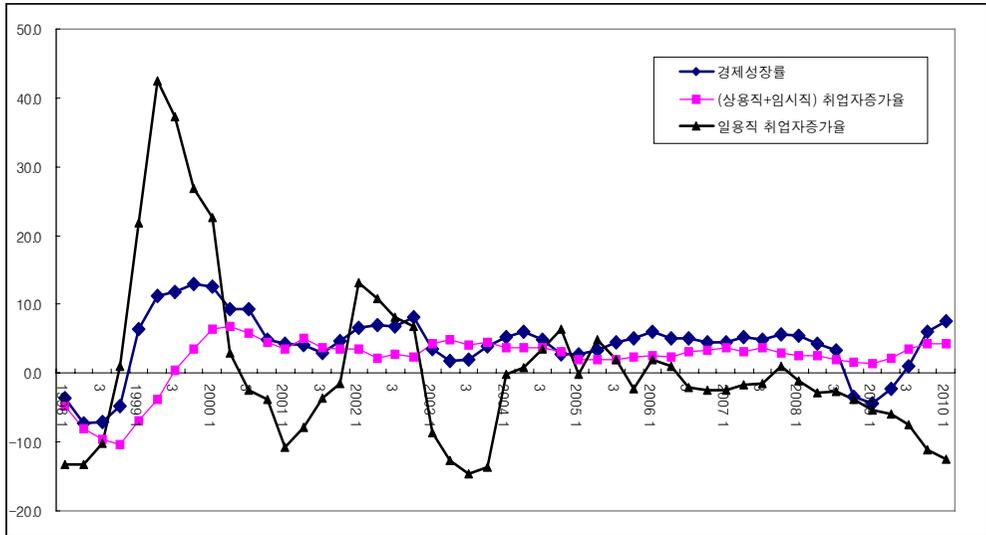
* 김복순=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eesaram@kli.re.kr).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leeky@kli.re.kr).

1) 2008년 말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은 주로 임시직과 일용직 및 비임금근로자에 집중되었으며 상용직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아 1999년 외환위기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부표 1 참조). 최근 임시직 감소도 눈에 띄지만 일용직처럼 뚜렷하지는 않다.

[그림 1] 경기변동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근로자로서 노동시장에서 고용사정이 가장 열악한 계층으로 볼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최근의 현상에 대해 몇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첫째,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등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경기적 영향 등으로 일용직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 구조변화의 가능성으로, 즉 일용직 종사자의 지위가 임시직이나 상용직으로 바뀌게 되어 일용직 종사자들의 규모가 줄어들고 임시직+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하게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실제로는 일용직 일자리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증가로 통계로 포착되는 내국인 일용직 근로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외국인근로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전제에 의거하고 있다.

최근 일용직의 감소현상에 대한 첫째의 추론이 타당하다면 일용직 일자리의 지속적인 감소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보다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는 특성상 사회안전망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불안은 곧 소득불안정으로 이어지므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형 일자리 대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둘째의 추론이 타당하다면 임금구조 등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지만 일단은 노동시장 구

조가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셋째의 추론이 타당하다면 이는 보다 복잡하다.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 일용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론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경기변동과 종사상 지위별 일자리 구조의 변화

<표 1>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기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변동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1999년 들어와서는 주로 상용직의 고용감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용직은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고용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2009년의 경기침체기에 상용직은 지속적으로 고용증가가 이루어진 반면 일용직과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고용이 회복되기 시작한 2010년 1/4분기에도 일용직 감소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용직의 감소는 경기침체기에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을 뿐 감소추이가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점에 주목된다.

<표 2>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종사상 지위별 고용량 변동과 전체 취업자 대비 고용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상용직 근로자수는 1998년과 1999년을 제외하

<표 1> 외환위기와 2009년 경기침체 시기의 분기별 일자리 변동과 특징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IMF 경제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1998				1999				2008				2009				2010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전 체	-925	-1,302	-1,514	-1,364	-579	187	722	1,085	209	173	141	54	-146	-134	-1	-6	132
임금	-778	-1,177	-1,309	-1,168	-430	308	701	889	312	288	208	137	74	175	356	385	371
상용직	-589	-817	-797	-788	-736	-527	-266	-67	435	448	348	316	318	313	386	515	651
임시직	44	-107	-315	-399	-24	128	311	434	-98	-96	-83	-94	-136	-5	125	105	-37
일용직	-233	-254	-197	18	330	708	656	522	-25	-63	-56	-85	-108	-133	-155	-235	-243
비임금	-147	-125	-206	-196	-150	-121	21	196	-102	-115	-66	-83	-220	-309	-357	-391	-239
고용주	-178	-246	-286	-280	-90	-70	-24	22	-38	-3	-44	-56	-46	-33	1	39	43
자영자	-94	-75	-57	75	127	99	145	135	-41	-64	-32	-39	-150	-253	-277	-318	-149
무급가족종사자	126	195	137	10	-187	-150	-100	39	-24	-49	10	13	-23	-24	-80	-111	-13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2〉 일용직 일자리의 변동 및 비중변화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고용증감>												
전 체	-1,276	353	865	416	597	-30	418	299	295	282	144	-71
임금근로자	-1,108	367	697	299	522	221	492	291	366	419	236	248
상용직	-748	-399	260	319	148	407	356	292	287	416	387	383
임시직	-194	213	353	118	160	118	78	-26	87	29	-93	22
일용직	-166	554	83	-139	215	-303	58	24	-8	-26	-57	-158
비임금근로자	-169	-13	167	118	75	-252	-73	8	-71	-137	-92	-319
고용주	-247	-41	107	96	63	12	50	-15	-32	-70	-35	-10
자영자	-37	126	56	90	77	-161	18	77	-5	-16	-44	-249
무급가족종사자	117	-100	6	-68	-66	-103	-141	-54	-33	-53	-12	-60
<비 중>												
임금근로자	61.7	62.4	63.1	63.3	64.0	65.1	66.0	66.4	67.2	68.2	68.7	70.0
상용직	32.8	30.2	30.2	31.1	31.0	32.8	33.8	34.6	35.4	36.8	38.2	39.9
임시직	20.3	21.0	21.8	21.9	22.0	22.6	22.5	22.1	22.2	22.1	21.5	21.7
일용직	8.6	11.2	11.1	10.3	11.0	9.6	9.7	9.7	9.5	9.3	9.0	8.4
비임금근로자	38.3	37.6	36.8	36.7	36.0	34.9	34.0	33.6	32.8	31.8	31.3	30.0
고용주	7.0	6.7	6.9	7.2	7.3	7.4	7.4	7.3	7.0	6.7	6.5	6.5
자영자	21.2	21.4	20.8	20.8	20.6	19.9	19.6	19.7	19.5	19.1	18.8	17.8
무급가족종사자	10.2	9.5	9.1	8.6	8.1	7.7	6.9	6.6	6.3	6.0	5.9	5.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고는 증가폭에는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오고 있는데 비해 일용직 근로자수는 경기변동에 따라 증감폭이 커 오다 2006년부터는 일용직 규모 자체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본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비임금근로자의 감소세 현상으로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200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대비 종사상 지위별 비중을 보면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998년 61.7%에서 2003년에는 65.1%로 그리고 2009년 70.0%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비해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998년 38.3%에서 2009년에는 30.0%로 이 기간 동안 8.3%p 하락하였다.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다.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보면 일용직 근로자는 1999년 8.6%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11.2%와 11.1%로 높아졌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임금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2006년 이후에는 절대숫자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Ⅲ. 일용직 일자리 변동의 원인

1. 산업별 노동수요의 감소에 기인하는가?

가. 산업별 일용직 일자리 구조의 변화

일용직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를 2010년 1/4분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전체 일용직 근로자의 3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17.3%), 도매 및 소매업(14.2%), 제조업(11.4%) 등의 순이다. 2005년 이후 일용직 근로자의 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10년 1/4분기에 이르기까지 임금근로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여 왔으나 일용직은 2006년 이후 음(-)의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감소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전체 일용직 근로자수는 2005년 2,212천 명에서 2006년 2,204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1,963천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2010년 1/4분기에는 1,699천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수는 2006년 9천 명이 감소하여 감소세로 접어들기 시작하여 2008년에 57천 명 감소, 2009년에 158천 명 감소 그리고 2010년 1/4분기에 243천 명이 감소하였다. 이를 주요 산업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1/4분기를 기준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감소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건설업(-98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45천 명), 제조업(-44천 명), 공공부문(-23천 명) 등이다(표 3 참조).

다음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변동추이를 임금근로자와 취업자의 변동추이와 비교하여 살펴보자. <표 4>에서 보듯이 제조업의 경우 2009년까지는 취업자수와 임금근로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2010년 1/4분기에는 전체 취업자수는 61천 명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수는 25천 명 증가하였다. 2010년 1/4분기에는 제조업의 전체 일자리는 61천 개 증가하였으며, 임금·비임금근로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용직이 77천 명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직이 53천 명 감소하여 임금근로자는 2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가 44천 명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의 비임금근로자가 37천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중심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가 증가하였으며, 자영자는 6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약간의 기복이 있지만 2008년 이후 임금근로자수와 취업자수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수 또한 이와 궤를 같이하여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2009

〈표 3〉 일용직 일자리의 산업별 분포

(단위: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일용직 고용규모						일용직 근로자의 변동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4
전 체	2,212	2,204	2,178	2,121	1,963	1,699	25	-9	-26	-57	-158	-243
민간	2,151	2,150	2,137	2,079	1,930	1,690	19	-1	-13	-58	-149	-220
농림어업	122	121	118	113	116	77	-7	-1	-3	-5	3	-7
광업	1	1	1	1	1	0	0	0	1	0	0	-1
제조업	288	277	264	255	222	194	-35	-11	-13	-9	-33	-4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2	1	1	1	0	1	0	-1	0	0	0	1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등	2	2	1	1	1	1	0	0	-1	0	0	-1
건설업	707	705	721	678	638	521	-30	-2	16	-43	-40	-98
도매 및 소매업	251	243	247	249	238	241	23	-7	4	2	-10	-13
운수업	48	53	53	56	45	37	5	5	0	3	-11	-15
숙박 및 음식점업	365	361	333	342	324	294	34	-4	-28	9	-18	-45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15	20	13	16	13	16	3	4	-6	3	-3	5
금융 및 보험업	8	5	6	6	4	6	1	-2	0	1	-2	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	16	13	8	14	9	1	0	-3	-5	6	-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2	16	16	11	10	9	1	4	-1	-4	-1	-2
사업시설관리 등	96	106	125	119	76	74	2	11	19	-6	-43	2
교육서비스업	25	19	21	23	21	16	4	-7	2	2	-2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	16	15	14	22	21	5	1	-2	-1	8	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57	54	47	51	44	40	13	-2	-8	4	-7	0
협회 및 단체·수리 등	62	72	69	76	80	76	0	10	-3	7	3	0
가구내 고용활동	62	61	74	59	61	57	-1	0	13	-15	2	1
국제 및 외국기관	-	-	-	0	-	-	0	0	0	0	0	0
공공	61	53	40	41	32	9	6	-7	-13	1	-9	-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년을 제외하고는 건설업의 일용직 감소 규모가 임금근로자나 전체 취업자 감소 규모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2010년 1/4분기 일용직 일자리는 전년 동기대비 98천 개 감소한데 비해 상용직 일자리는 동기간 11천 명 증가하였고, 자영자의 증가가 눈에 띈다. 건설업에서 자영자는 2006년 3/4분기 이후 감소세를 유지해 오다가 2009년 4/4분기 6천 명, 2010년 1/4분기 2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금근로자수는 2005년 이후 2009년에만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다

<표 4> 산업별 일자리 임금근로자 및 취업자 변동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임금근로자 고용규모						취업자 고용규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4
전 체	291	365	420	236	247	371	299	295	282	145	-72	132
민간	267	355	424	193	56	347	276	285	286	101	-263	108
농림어업	-11	1	9	-7	9	-3	-11	-32	-58	-37	-38	-164
광업	2	-1	1	6	-1	-1	2	-1	1	6	0	1
제조업	-43	-65	-23	-49	-96	25	-47	-73	-42	-52	-126	6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	4	11	5	5	-18	-1	5	10	4	5	-17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등	5	7	2	2	5	-9	6	6	0	5	6	-10
건설업	-19	15	60	-1	-60	-86	-5	20	16	-37	-91	-61
도매 및 소매업	8	10	55	-22	4	56	-56	-36	-38	-42	-32	10
운수업	11	26	0	12	-3	52	29	28	54	1	-1	63
숙박 및 음식점업	30	9	9	11	-39	1	1	-9	0	-5	-107	-67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27	23	-11	-10	33	39	32	13	-17	-7	25	46
금융 및 보험업	8	35	22	24	-41	23	8	40	20	15	-55	19
부동산업 및 임대업	35	-2	-2	-15	26	47	44	3	6	-17	12	1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	61	28	41	83	31	19	56	21	55	87	39
사업시설관리 등	60	78	130	14	-25	22	56	77	135	20	-29	31
교육서비스업	50	66	20	47	46	30	59	98	38	44	48	5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2	34	56	98	149	113	49	42	59	103	156	11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39	14	-1	31	-22	-30	37	-4	-8	48	-28	-54
협회 및 단체·수리 등	-6	35	36	13	-11	53	49	48	72	6	-86	23
가구내 고용활동	15	6	24	-10	-3	4	5	8	23	-11	-3	3
국제 및 외국기관	0	-4	-4	1	-4	-2	0	-4	-4	1	-4	-2
공공	24	11	-5	44	191	25	23	10	-5	43	191	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른 기간에는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며, 취업자수는 2006년과 2008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일용직 근로자수도 2008년을 제외하고는 2007년 이후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0년 1/4분기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전체 일자리는 67천 개 사라져 일용직 감소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일자리 감소는 일용직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8천 명의 자영자가 사업장의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산업별 종사상 지위별 비중 변화추이는 <부표 3>을 참조.

나. 산업별 일용직 일자리 비중의 변화

앞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변동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각 산업에서 차지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각 산업별 일용직 근로자 비중의 변화는 해당 산업 고용규모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가 어떤 산업에서 주로 감소하고 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표 5>는 산업별 취업자 및 임금근로자 대비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일용직 규모가 큰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제조업의 경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

<표 5> 산업별 일용직 일자리의 비중 추이

(단위 : %)

	취업자 중 일용직 비중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 비중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09	2010. 1/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09	2010. 1/4
전 체	9.7	9.5	9.3	9	8.4	-1.3	7.4	14.6	14.2	13.6	13.1	11.9	-2.7	10.4
민간	9.8	9.6	9.4	9.1	8.6	-1.2	7.6	14.9	14.6	14.1	13.5	12.5	-2.4	10.9
농림어업	6.7	6.8	6.9	6.7	7	0.3	6.3	76.3	75.3	69.4	69.2	67.2	-9.1	57.5
광업	3.7	4.8	9.1	4.5	3.2	-0.5	0.9	3.9	5.2	9.2	4.7	3.6	-0.3	1
제조업	7	6.8	6.6	6.4	5.8	-1.2	5	8.2	8	7.7	7.6	6.8	-1.4	5.9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2.4	1.3	1.2	0.7	0.4	-2.0	1.5	2.5	1.3	1.2	0.7	0.4	-2.1	1.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등	3.6	3.9	2.2	2.1	2	-1.6	0.8	4.3	4.4	2.4	2.4	2.3	-2.0	0.9
건설업	39	38.5	39	37.4	37.1	-1.9	31.7	52.5	51.8	50.7	47.7	46.8	-5.7	40.9
도매 및 소매업	6.7	6.6	6.7	6.9	6.6	-0.1	6.7	13.2	12.7	12.6	12.8	12.3	-0.9	12
운수업	4.1	4.5	4.3	4.5	3.6	-0.5	2.9	7.5	8	8	8.3	6.7	-0.8	5.3
숙박 및 음식점업	17.8	17.6	16.2	16.7	16.7	-1.1	15.4	32.8	32.2	29.4	29.9	29.3	-3.5	26.2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2.4	3	2.1	2.6	2	-0.4	2.5	2.7	3.3	2.3	2.9	2.1	-0.6	2.7
금융 및 보험업	1	0.7	0.7	0.8	0.6	-0.4	0.8	1.1	0.7	0.7	0.8	0.6	-0.5	0.8
부동산업 및 임대업	3.1	3.1	2.6	1.6	2.7	-0.4	1.7	5.1	5.1	4.3	2.7	4.4	-0.7	2.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9	2.4	2.2	1.5	1.2	-0.7	1	2.4	2.9	2.6	1.8	1.4	-1.0	1.2
사업시설관리 등	12.9	13	13.1	12.2	8	-4.9	7.8	13.8	13.7	13.8	12.9	8.5	-5.3	8.3
교육서비스업	1.6	1.1	1.2	1.3	1.1	-0.5	0.9	2	1.4	1.5	1.6	1.4	-0.6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4	2.4	2	1.6	2.2	-0.2	2	2.6	2.6	2.2	1.8	2.4	-0.2	2.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14.8	14.4	12.6	12.1	11.3	-3.5	10.9	26	23.4	20.2	19.4	18.4	-7.6	17.5
협회 및 단체·수리 등	5.3	5.9	5.3	5.9	6.6	1.3	6.1	10.7	11.8	10.7	11.6	12.3	1.6	11.1
가구내 고용활동	47.4	44.4	46.1	39.6	41.7	-5.7	39.2	48.7	46.3	47.3	40.5	42.6	-6.1	39.5
국제 및 외국기관	0	0	0	0.6	0	0	0	0	0	0	0.6	0	0.0	0
공공	7.7	6.7	5.1	4.9	3.1	-4.6	1	7.7	6.7	5.1	4.9	3.1	-4.6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는 일용직의 비중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5~09년 기간 동안 1.2%p 감소하였다. 건설업은 2007년을 제외하고는 200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5~09년 기간에 1.9%p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9년에 건설업 취업자 중 일용직 비중이 37.1%였으나 2010년 1/4분기에는 31.7%로 크게 하락하였다. 도매 및 소매업은 같은 기간 동안 0.1%p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005년 17.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는 16.7%로 이 기간 동안 1.1%p 감소하였으며, 2010년 1/4분기에는 일용직 비중이 15.4%로 더욱 낮아졌다. 끝으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2005년 일용직 비중이 12.9%에서 2009년에는 8.0%로 낮아져 이 기간 동안 4.9%p 감소하였으며, 2010년 1/4분기에는 일용직 비중이 7.8%로 하락하였다.

이들 산업에서 사라진 일용직 일자리의 특성은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건설업에서 사라진 일용직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300인 미만 중소기업,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사라진 일자리는 주로 일용직 일자리의 대표직종인 단순노무직에서 전년동기대비 54천 명,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42천 명 감소하였으며, 연령별로는 40대 47천 명, 30대 29천 명, 50대 26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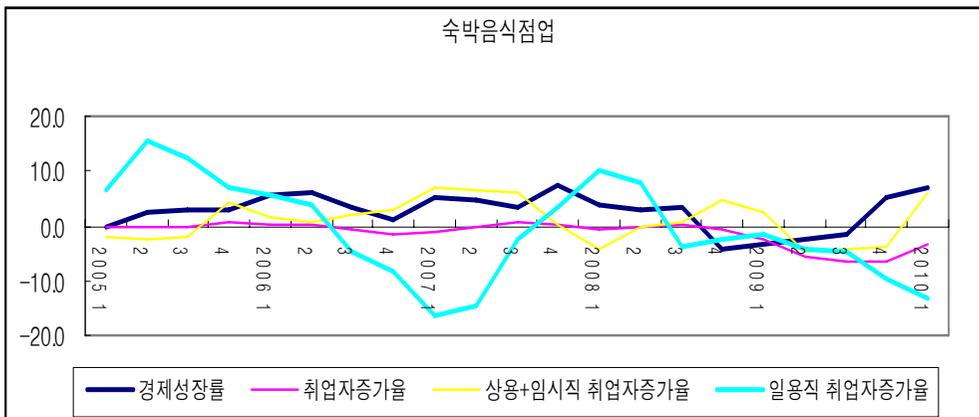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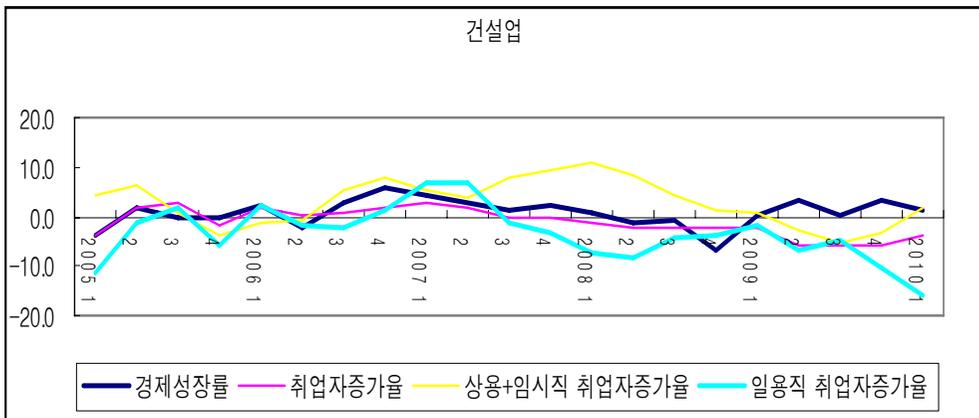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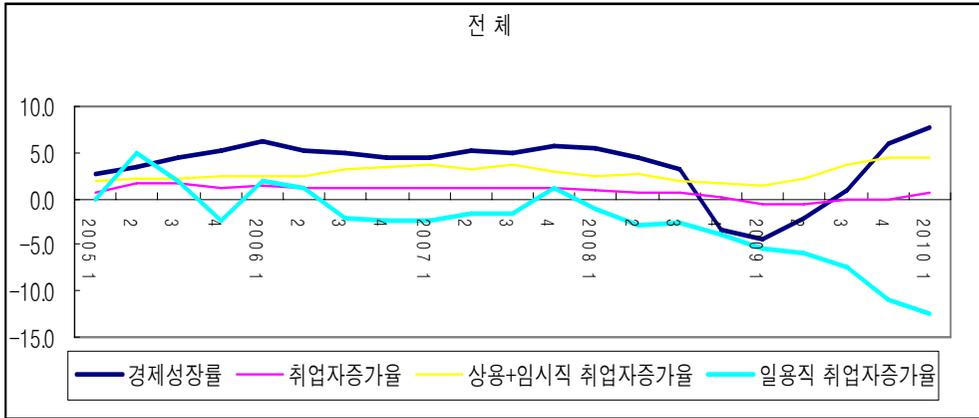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일용직은 주로 서비스 종사자에서 감소(72천 개)하였으며, 성별로는 40대 여성이고 1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의 일용직 일자리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단순노무직과 판매직 종사자가 주도했으며, 60세 이상(-10천 명)과 30세 미만(-10천 명)에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매 및 소매업의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전년동기대비 10천 명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제조업에서 일용직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44천 개 사라졌다.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일용직 감소가 나타났으며, 주로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22천 명), 단순노무직(-18천 명) 중심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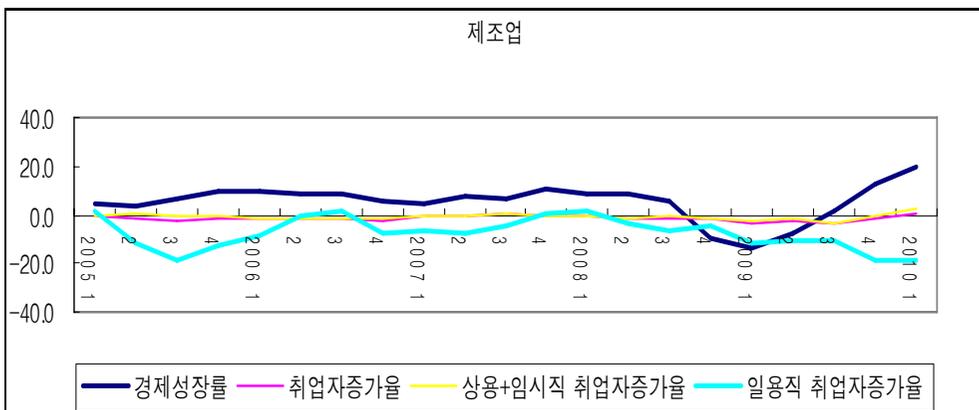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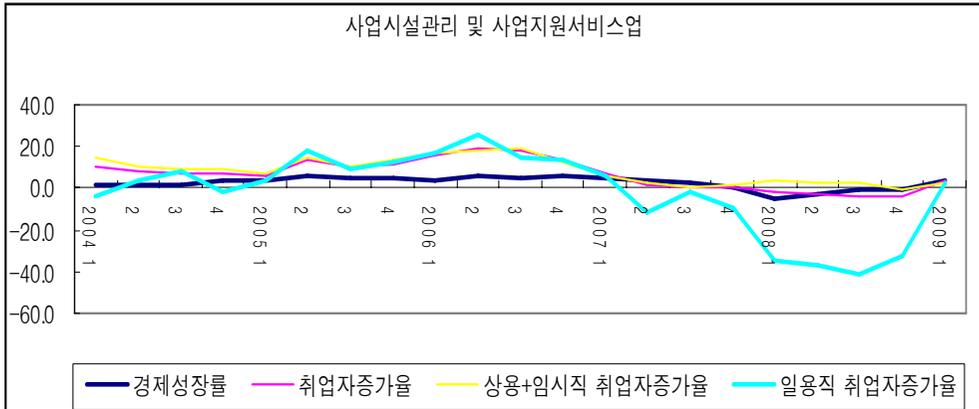
다. 경기변동과 산업별 일자리 변동

[그림 2]는 일용직 일자리 감소를 주도하는 건설업,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제조업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경기침체기 이전까지 산업성장률은 양(+)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상용직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용직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용직 감소가 두드러진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공통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일용직 감소가 해당 산업의 경기침체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경기적 영향도 일부 있지만 일용직의 감소현상이 기업의 감량경영에 기인하기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2] 산업별 경제성장률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2. 이직한 일용직 근로자는 어디로 유입되는가?

본 연구에서 제기한 두 번째 가능성, 즉 일용직의 고용형태의 변화가능성을 검토해 보자. 이에 대한 분석은 일용직 종사자들의 노동이동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분석에 이용하고 있는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다. 동 조사는 매월 전체 표본의 1/36을 대체하기 때문에 패널로 연결하여 노동이동을 분석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대략적인 노동이동 흐름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설문 문항을 이용하여 유출입 분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³⁾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일용직 일자리의 노동이동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일용직 일자리는 2007년 다소 주춤했지만 최근 들어 입·이직이 모두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3) 황덕순(2009), 『경제위기가 노동이동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노동리뷰』 5월호.

이직규모가 더 커 전체 일용직 일자리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직자의 노동이동을 비경제활동인구, 실업, 다른 일자리로의 취업으로 나누어 보면 추세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으로의 이동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일자리로의 취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일용직 종사자의 경우 실업으로의 이동이 높지만 최근 들어 다른 부문으로의 취업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즉 2004년의 일용직 총이직자 중 취업으로의 이동은 27.5%였으나 2006년에 32.3%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38.1%로 나타나 점차 취업으로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으로 이동한 경우 이들이 어떤 일자리로 이동을 하였는지는 자료의 한계상 알 수 없다. 하지만 일자리 시장에서 한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의 다른 일자리로의 이동이 늘고 있다는 것은 일자리 여건이 보다 개선된 분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유보적이다.

일용직 종사자들의 노동이동을 일용직 감소폭이 큰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설업의 경우 취업으로의 이동비중이 2004년 27.5%에서 2008년에는 38.1%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35.6%로 다소 하락하였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2008년 일용직 종사자의 이직규모는 1,662천 명이다. 이 중 다른 부문으로의 취업은 804천 명으로 이직자의 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16.3%p나 증가한 것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일용직 종사자의 노동이동을 보면 다른 일자리로의 취업은 2005년에는 14.4%였으나 2009년에는 29.0%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조업의 일용직 이직자 중 다른 일자리로 취업한 비중은 2005년 29.3%에서 2007년에는 43.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2009년에는 3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용직 종사자들이 취업으로 이직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취업으로의 이동은 비일용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용직 종사자의 고용형태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증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제 본 연구에서 지적한 세 번째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자. 외국인근로자의 업종별 분포나 종사상 지위별 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최근의 일용근로자의 감소추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건설업이나 음식업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은 주로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일용직 형태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일용직 일자리의 감소추세의 이면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증가에 따른 노동시장의 대체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표 6〉 일용직 일자리의 노동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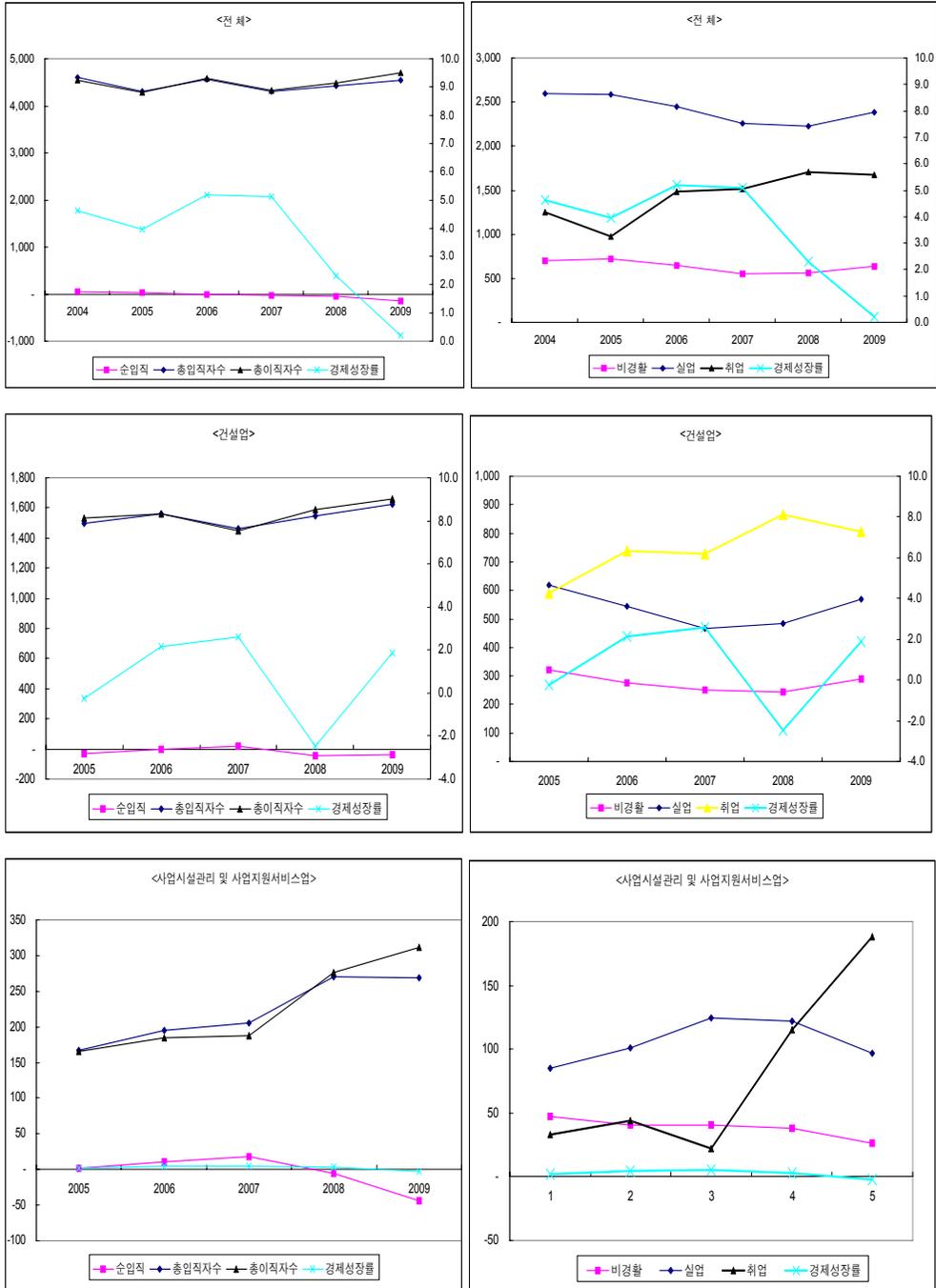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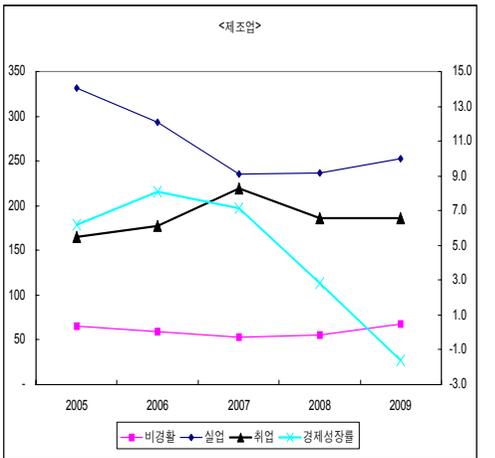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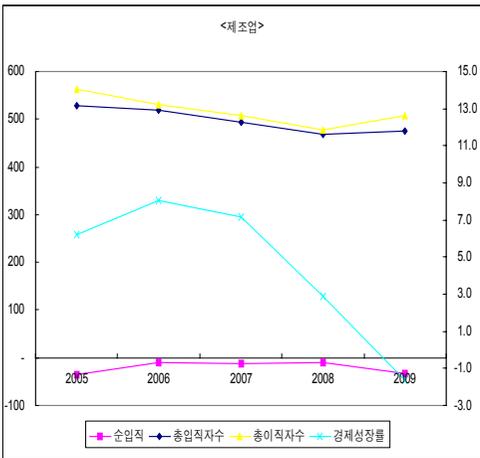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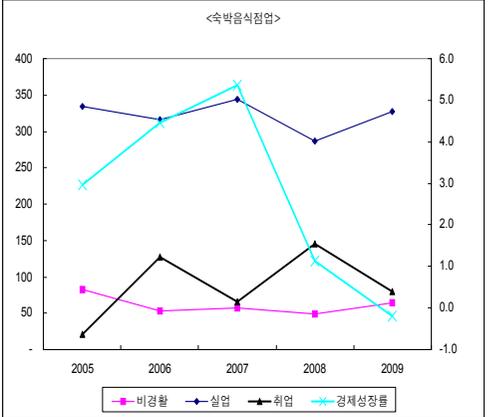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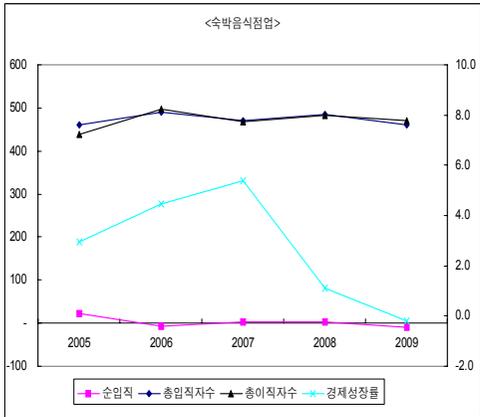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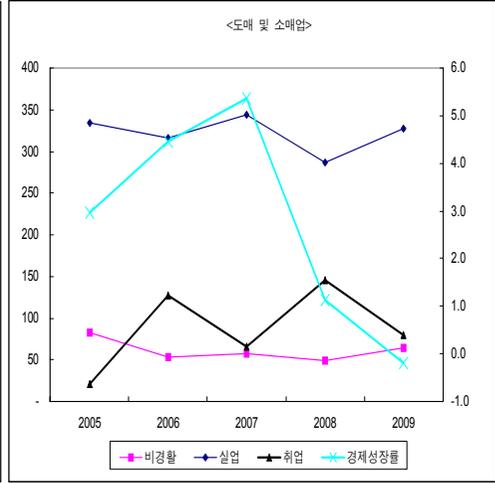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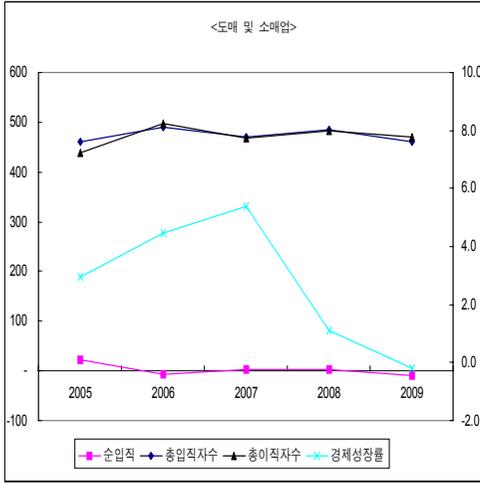
	순입직	총입직자	총이직자	이직자의 노동이동					
				규 모			비 중		
				비경활	실업	취업	비경활	실업	취업
<전 체>									
2004	58	4,600	4,541	702	2,592	1,247	15.5	57.1	27.5
2005	25	4,311	4,286	725	2,582	979	16.9	60.2	22.9
2006	-9	4,567	4,576	643	2,453	1,480	14.0	53.6	32.3
2007	-26	4,304	4,330	555	2,259	1,516	12.8	52.2	35.0
2008	-57	4,435	4,492	560	2,223	1,709	12.5	49.5	38.1
2009	-158	4,547	4,705	641	2,389	1,675	13.6	50.8	35.6
<건설업>									
2005	-30	1,499	1,530	322	617	590	21.0	40.4	38.6
2006	-2	1,560	1,562	277	545	740	17.7	34.9	47.4
2007	16	1,461	1,445	250	466	729	17.3	32.2	50.5
2008	-43	1,547	1,591	243	483	864	15.3	30.4	54.3
2009	-40	1,621	1,662	289	569	804	17.4	34.2	48.4
<도매 및 소매업>									
2005	23	461	438	82	334	22	18.7	76.4	4.9
2006	-7	489	497	53	317	127	10.7	63.7	25.5
2007	4	470	467	57	345	65	12.2	73.8	14.0
2008	2	484	482	50	287	146	10.3	59.4	30.3
2009	-10	461	471	64	327	80	13.6	69.3	17.0
<숙박 및 음식점업>									
2005	34	711	677	87	492	98	12.9	72.6	14.4
2006	-4	758	762	80	473	209	10.5	62.1	27.4
2007	-28	740	769	67	446	256	8.7	58.0	33.3
2008	9	688	679	67	473	139	9.8	69.7	20.5
2009	-18	739	757	87	450	220	11.5	59.5	29.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005	2	167	165	48	85	33	28.8	51.3	20.0
2006	11	196	185	40	101	44	21.9	54.6	23.5
2007	19	206	187	40	124	22	21.6	66.4	11.9
2008	-6	270	276	38	122	115	13.9	44.4	41.7
2009	-43	268	312	26	97	189	8.4	31.1	60.5
<제조업>									
2005	-35	528	563	66	332	165	11.7	59.0	29.3
2006	-11	519	530	59	293	178	11.1	55.3	33.6
2007	-13	495	507	53	235	220	10.4	46.3	43.3
2008	-9	468	477	55	236	186	11.5	49.5	39.0
2009	-33	474	508	68	253	187	13.4	49.8	36.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3] 일용직 일자리의 고용규모 변화와 노동이동

(단위: 천 명,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다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인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의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의 노동이동 자료와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추이가 결합된 자료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 여기서는 고용탄력성을 이용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내국인 대체가능성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 경우 일용직에 한정된 분석이 아닌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과 일용직 감소와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외국인근로자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외국인근로자의 상당수는 사업장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외국인력의 거주 특성상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고용률은 매우 높다. 따라서 외국인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비록 모집단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중치 부여문제가 남아 있고 대체표본에 따른 내국인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상대적으로 외국인 취업자가 과소 추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방문취업제 유입증가로 외국인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추이가 전체 취업자 통계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체 외국인력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통계에 포함되는 비중을 4가지로 가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7>은 외국인근로자 추이와 취업자 통계에 외국인력의 반영정도를 세 가지 가정으로 구분하여 고용률을 추계한 결과이고⁴⁾ <표 8>은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고용탄력성⁵⁾을 추정한 결과이다. 고용탄력성 추계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고용탄력성을 계산할 경우 시기구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탄력성 값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분석시기의 구분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경기변동을 고려하거나 통계적 방법에 의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증가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있기 때문에 특정시점을 고정하고 시기를 늘려가면서 탄력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에서 보듯이 외국인근로자가 100%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한, 즉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취업자 통계를 기준으로 탄력성을 추계할 경우 2000~06년 기간의 고용탄력성은 0.33(2000~03년도 같은 값으로 나타남)이지만 2007년과 2008년에는 200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0.31로 그리고 2003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0.30으로 각각 2%p, 3%p 하락하였다. 그런데 만일 외국인근로자가 취업자 통계에 일부만 반영되어 있거나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

4)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대한 추계는 이규용·박성재(2008)와 김정호(2009)가 수행한 바 있다. 여기서는 김정호의 추계에 나타난 외국인근로자의 규모를 이용하였다.

5) 고용탄력성은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누어 구한 값으로 성장률 1%에 따른 취업자 증가율을 의미한다.

할 경우 고용탄력성은 높아지고 2007년 이후 고용탄력성의 하락규모가 변하지 않거나 1%p 하락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계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일자리 규모에 비해 실제 일자리 규모는 하락하지 않았거나 하락비중이 매우 미미하며 따라서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일용직 일자리 감소 규

〈표 7〉 외국인 반영비율에 따른 고용률 추이

	외국인근로자 추이	외국인력이 100%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			외국인력의 일부만 취업자 통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		
		취업자수	증가율	고용률	70% 포함	50% 포함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00	307	21,156		58.5	58.6	58.6	58.8
2001	352	21,572	2.0	59.0	59.1	59.2	59.4
2002	387	22,169	2.8	60.0	60.1	60.2	60.4
2003	417	22,139	-0.1	59.3	59.4	59.5	59.7
2004	467	22,557	1.9	59.8	60.0	60.1	60.3
2005	429	22,856	1.3	59.7	59.8	59.9	60.1
2006	540	23,151	1.3	59.7	59.9	60.0	60.3
2007	656	23,433	1.2	59.8	60.0	60.2	60.5
2008	705	23,577	0.6	59.5	59.8	59.9	60.2
2009	692	23,506	-0.3	58.6	58.8	59.0	59.3

주 : 외국인근로자 통계는 김정호(2009)자료를 이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표 8〉 외국인력 변화와 고용탄력성 추이

		외국인력이 100%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	외국인력의 일부만 취업자 통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		
			70% 포함	50% 포함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시기구분 1	2000-06	0.33	0.34	0.34	0.36
	2000-07	0.31	0.33	0.34	0.36
	2000-08	0.31	0.32	0.33	0.36
	2000-09	0.30	0.31	0.32	0.34
시기구분 2	2003-06	0.33	0.34	0.34	0.36
	2003-07	0.30	0.32	0.33	0.35
	2003-08	0.30	0.32	0.33	0.35
	2003-09	0.28	0.30	0.31	0.33

주 : 1) 외국인 근로자 통계는 김정호(2009) 자료를 이용.
 2) 탄력성은 취업자 증가율(외국인근로자 규모 반영)/실질 GDP증가율로 계산하였으며 분석대상기간의 기간평균값임.

모의 일부분은 일종의 통계적 착시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07년을 전후로 동포의 유입 규모가 증가하여 왔고, 이들은 주로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의 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외국인력이 경찰의 통계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의 일용직 일자리 규모는 현재의 통계에서 보여지는 감소 규모보다는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실제로는 외국인근로자에 의해 충원되고 있는 일용직 일자리가 통계상으로 포착되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V. 결론

이 글은 최근의 일용직 일자리 감소현상을 산업수요의 변화, 일용직 일자리의 고용형태의 변화, 외국인근로자의 영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 문제는 일용직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따라서 일용직 일자리 감소에 따른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일용직 감소현상을 보다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수행되기보다는 추론의 성격에서 접근한 것인 만큼 분명한 결론을 제시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즉, 최근의 일용직 감소는 경기적 영향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의 감소영향도 일부 있지만 외국인근로자 통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 규모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점,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형태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비일용직 형태로 취업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은 시론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용직의 노동이동이나 외국인근로자의 영향 등에 대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다만 최근의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감소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영향이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국인 일용직 일자리가 잠식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용직 종사자들이 타부문으로 노동이동을 통해 비일용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일용직 감소현상을 일용직의 고용불안의 심화로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일용직 종사자들의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면서 이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비경활이나 실업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고용서비스 선진화나 직업훈련프로그램, 그리고 빈일자리 대책 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운용에 있어 실직한 일용직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KLI**

〈부표 1〉 일용직 일자리 감소 규모가 큰 주요 산업의 일용직 일자리 특징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08. 1/4		2009. 1/4		2010					
		고용 규모	증감	고용 규모	증감	고용 규모	증감	1월 증감	2월 증감	3월 증감	
건 설 업	전 체	629	-48	619	-10	521	-98	-101	-126	-67	
	연령	30세 미만	29	-12	25	-4	31	6	14	-0	3
		30대	123	-10	118	-5	89	-29	-29	-29	-29
		40대	235	-30	234	-1	188	-47	-54	-52	-34
		50대	182	3	185	3	160	-26	-27	-33	-17
		60세 이상	60	2	56	-4	53	-3	-6	-12	10
	직종	관리자	-	-	-	-	0	0	-	-	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	0	0	-1	-	-0	-	-1	-
		사무종사자	1	-0	1	0	0	-1	-0	-0	-2
		서비스종사자	-	-	-	-	0	0	-	-	0
		판매종사자	-	-	-	-	-	-	-	-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	0	1	0	1	0	-0	0	1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73	-33	362	-11	320	-42	-32	-40	-5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1	12	3	11	-1	-1	-3	0
		단순노무종사자	244	-14	242	-1	188	-54	-68	-81	-13
	규모	300인 미만	627	-49	618	-10	520	-98	-101	-126	-67
		1~5인	217	-29	190	-27	182	-8	-10	-13	-1
		5~9인	238	-12	244	6	193	-52	-56	-57	-42
		10~29인	133	-6	144	11	111	-33	-26	-42	-30
30~99인		36	2	34	-2	26	-8	-11	-14	1	
100~299인		3	-4	5	2	7	2	2	-0	4	
300인 이상	1	1	1	-0	1	-0	-0	0	-		
도 소 매 업	전 체	259	10	254	-5	241	-13	-18	3	-24	
	연령	30세 미만	96	-0	86	-10	76	-10	-5	-11	-15
		30대	38	-2	28	-10	28	0	0	8	-8
		40대	42	2	45	3	42	-3	9	-5	3
		50대	21	-1	27	6	37	10	14	11	7
		60세 이상	62	11	68	7	59	-10	-18	-1	-11
	직종	관리자	-	-	-	-	-	-	-	-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1	2	2	-	-2	-2	-1	-1
		사무종사자	5	1	3	-1	6	3	5	3	1
		서비스종사자	1	0	2	1	1	-1	0	-1	-2
		판매종사자	123	5	114	-9	108	-6	0	-0	-17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	-3	-	-0	1	1	1	1	1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6	-1	7	1	9	2	1	3	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	0	5	1	3	-3	0	-2	-6
		단순노무종사자	120	8	122	2	114	-8	-24	1	-0
	규모	300인 미만	255	12	251	-4	238	-13	-18	3	-24
		1~5인	167	17	159	-8	169	10	12	27	-9
		5~9인	40	-7	46	6	33	-12	-20	-12	-5
		10~29인	24	6	21	-4	19	-2	2	-1	-6
30~99인		12	-1	14	2	8	-6	-5	-6	-8	
100~299인		10	-3	11	0	9	-2	-7	-4	4	
300인 이상	4	-2	3	-1	4	0	-0	-0	1		

〈부표 1의 계속〉

		2008. 1/4		2009. 1/4		2010					
		고용 규모	증감	고용 규모	증감	2010. 1/4		1월	2월	3월	
						고용 규모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숙박업 및 접점업	전 체	345	32	339	-6	294	-45	-48	-35	-51	
	연령	30세 미만	154	38	121	-33	117	-4	-15	4	-2
		30대	35	-6	40	4	32	-8	-5	-7	-10
		40대	89	-4	103	14	73	-30	-27	-27	-36
		50대	54	4	61	7	57	-4	-4	-5	-2
		60세 이상	13	1	14	1	15	1	4	-0	-1
	직종	관리자	-	-	-	-	-	-	-	-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0	-2	2	1	1	-1	-0	-1	-2
		사무종사자	2	0	0	-1	1	1	0	1	1
		서비스종사자	247	28	250	3	178	-72	-84	-59	-74
		판매종사자	16	6	5	-10	18	13	16	13	1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	0	-	-0	-	-	-	-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0	-1	-	-0	0	0	0	0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1	1	1	-	-1	-2	-1	-1
		단순노무종사자	80	1	80	0	96	16	22	13	14
	규모	300인 미만	344	32	338	-7	294	-44	-48	-35	-51
		1~5인	188	7	190	1	178	-11	-11	-1	-22
		5~9인	111	25	111	1	85	-27	-29	-23	-28
		10~29인	36	-2	29	-7	25	-4	-3	-8	-2
30~99인		7	0	7	-0	5	-2	-4	-2	-0	
100~299인		1	1	1	-1	1	1	1	1	-	
300인 이상	1	0	1	1	0	-1	-2	-1	0		
제조업	전 체	269	3	237	-32	194	-44	-45	-46	-40	
	연령	30세 미만	22	-6	25	3	25	0	2	-2	1
		30대	72	-0	49	-23	39	-9	-12	-9	-7
		40대	85	8	81	-4	66	-15	-6	-11	-29
		50대	48	0	49	1	39	-10	-13	-16	-1
		60세 이상	42	1	33	-8	24	-10	-16	-9	-4
	직종	관리자	-	-	-	-	-	-	-	-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	-0	1	-0	1	0	1	-0	-1
		사무종사자	3	-0	1	-1	1	0	-0	1	-0
		서비스종사자	2	1	1	-1	1	-0	0	-0	-1
		판매종사자	1	-0	1	0	1	-1	-1	-0	-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	-	-	-	-	-	-	-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64	-6	71	7	49	-22	-15	-24	-2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3	-4	27	-6	23	-3	0	-4	-6
		단순노무종사자	165	12	135	-30	118	-18	-30	-18	-5
	규모	300인 미만	266	4	235	-31	193	-42	-45	-46	-40
		1~5인	106	-2	90	-17	77	-13	-12	-19	-7
		5~9인	61	10	61	0	47	-14	-15	-17	-11
		10~29인	69	-0	56	-13	45	-11	-14	-7	-12
30~99인		23	-3	19	-4	19	0	4	0	-3	
100~299인		7	-0	9	2	4	-5	-5	-4	-6	
300인 이상	3	-1	2	-1	1	-1	-4	0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부표 2〉 일용직 일자리 변동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08. 1/4		2009. 1/4		2010					
		고용 규모	증감	고용 규모	증감	2010. 1/4		1월	2월	3월	
						고용 규모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전 체		2,051	-25	1,942	-108	1,699	-243	-244	-239	-247	
연령	30세 미만	414	6	343	-70	343	-0	5	1	-7	
	30대	348	-21	300	-48	243	-56	-56	-44	-70	
	40대	578	-24	576	-2	474	-102	-97	-98	-111	
	50대	442	26	456	14	412	-44	-44	-57	-30	
	60세 이상	269	-11	267	-2	227	-40	-52	-41	-28	
직종	관리자	-	-	-	-	0	0	-	-	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8	7	23	-5	14	-9	-10	-5	-11	
	사무종사자	49	-2	34	-15	40	6	0	18	-1	
	서비스종사자	326	33	335	9	261	-74	-74	-67	-82	
	판매종사자	152	12	133	-19	148	15	22	20	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6	-7	19	-7	15	-4	-4	-2	-6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471	-35	460	-11	399	-62	-45	-60	-8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5	6	84	-21	70	-15	-7	-16	-22	
	단순노무종사자	893	-39	853	-40	752	-100	-128	-127	-47	
	민간	2,021	-13	1,910	-111	1,690	-220	-230	-216	-215	
산업	농림어업	90	-7	84	-6	77	-7	-6	-16	1	
	광업	1	0	1	-0	0	-1	0	-1	-1	
	제조업	269	3	237	-32	194	-44	-45	-46	-4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	1	0	-1	1	1	0	2	1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1	-0	2	0	1	-1	-2	-1	-1	
	건설업	629	-48	619	-10	521	-98	-101	-126	-67	
	도매 및 소매업	259	10	254	-5	241	-13	-18	3	-24	
	운수업	58	2	52	-6	37	-15	-19	-12	-14	
	숙박 및 음식점업	345	32	339	-6	294	-45	-48	-35	-5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2	4	12	-10	16	5	3	5	6	
	금융 및 보험업	5	-1	4	-1	6	2	-1	6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6	-8	10	4	9	-1	-1	0	-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	-7	11	-2	9	-2	-2	0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9	6	72	-38	74	2	3	10	-7	
	교육서비스업	19	2	19	1	16	-3	-6	-3	-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	-3	21	8	21	-0	3	-2	-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47	2	40	-7	40	-0	3	-1	-3	
	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71	2	76	6	76	-0	7	1	-8	
	가구내 고용활동	63	-3	56	-7	57	1	1	-0	1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	-	-	-	
	공공(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9	-11	32	2	9	-23	-14	-23	-31	
	규모	300인 미만	2,031	-21	1,924	-107	1,685	-239	-234	-239	-245
		1~5인	934	5	869	-65	830	-39	-37	-11	-69
		5~9인	559	19	555	-4	444	-110	-121	-127	-83
		10~29인	367	-32	345	-22	280	-65	-48	-76	-71
30~99인		130	-7	113	-17	98	-15	-16	-16	-13	
100~299인		41	-6	41	0	32	-10	-12	-8	-8	
300인 이상	20	-4	18	-2	14	-4	-10	-0	-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부표 3〉 산업별·종사상 지위별 고용비중 추이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2008. 1/4	2009. 1/4	2010. 1/4
농림어업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0.8	0.8	0.9	1.2	1.0	1.2	1.2	1.4
	임시직	1.3	1.4	2.1	1.8	2.4	2.1	2.6	3.2
	일용직	6.7	6.8	6.9	6.7	7.0	6.5	6.0	6.3
	고용주	2.2	2.4	3.1	2.8	3.3	3.2	3.0	3.7
	자영자	60.4	59.7	58.6	59.3	58.4	62.7	62.3	62.9
	무급가족종사자	28.6	28.8	28.4	28.2	27.8	24.2	24.8	22.5
광업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68.4	70.6	72.8	77.9	69.9	79.1	71.5	75.7
	임시직	22.0	18.1	16.5	13.5	17.0	15.2	18.5	11.9
	일용직	3.7	4.8	9.1	4.5	3.2	4.0	4.1	0.9
	고용주	3.9	4.3	0.3	1.6	5.5	0.6	3.3	5.4
	자영자	1.9	2.0	1.3	1.0	4.4	0.0	2.6	6.2
	무급가족종사자	0.0	0.3	0.0	1.5	0.0	1.1	0.0	0.0
제조업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57.3	57.1	59.2	60.2	62.4	58.9	61.9	62.9
	임시직	20.8	21.0	19.5	18.5	17.2	19.5	17.3	16.8
	일용직	7.0	6.8	6.6	6.4	5.8	6.7	6.2	5.0
	고용주	6.4	6.2	6.1	5.8	5.8	6.0	5.5	6.0
	자영자	5.5	5.6	5.7	6.1	5.8	5.8	6.1	5.8
	무급가족종사자	3.2	3.2	3.0	3.0	3.0	3.0	3.1	3.5
전기가스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82.2	85.4	88.7	92.7	94.3	91.1	95.9	94.8
	임시직	13.1	10.0	8.8	6.0	4.6	7.7	3.4	2.5
	일용직	2.4	1.3	1.2	0.7	0.4	1.2	0.3	1.5
	고용주	0.6	1.2	0.6	0.1	0.3	0.0	0.5	0.0
	자영자	0.8	1.1	0.6	0.5	0.3	0.0	0.0	1.2
	무급가족종사자	0.9	1.1	0.1	0.0	0.0	0.0	0.0	0.0
하수폐기물처리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65.7	64.0	64.6	59.7	65.6	59.9	63.2	73.2
	임시직	15.3	20.9	25.4	26.4	20.2	29.0	23.2	13.6
	일용직	3.6	3.9	2.2	2.1	2.0	2.1	2.4	0.8
	고용주	10.4	5.9	2.3	8.1	8.2	5.3	8.2	8.2
	자영자	4.1	4.8	4.6	1.7	2.4	2.4	1.5	2.9
	무급가족종사자	0.8	0.5	0.9	2.0	1.5	1.3	1.5	1.3
건설업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21.5	22.1	24.5	28.1	30.2	28.2	31.0	32.8
	임시직	13.7	13.7	13.3	12.9	11.8	13.7	12.3	12.8
	일용직	39.0	38.5	39.0	37.4	37.1	36.0	36.3	31.7
	고용주	13.1	12.6	10.8	9.9	9.3	10.1	9.5	9.5
	자영자	11.4	11.8	11.0	10.4	10.2	10.7	9.8	11.8
	무급가족종사자	1.3	1.4	1.3	1.3	1.4	1.4	1.1	1.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8. 1/4	2009. 1/4	2010. 1/4
도매 및 소매업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17.1	18.5	20.4	21.5	22.4	21.4	22.0	23.6
	임시직	26.9	26.3	26.4	25.1	25.1	25.4	25.0	25.2
	일용직	6.7	6.6	6.7	6.9	6.6	7.0	7.0	6.7
	고용주	9.6	9.6	9.6	9.6	10.0	9.5	9.7	10.0
	자영자	29.8	29.0	27.6	27.3	26.5	27.1	26.7	26.0
	무급가족종사자	9.9	9.9	9.4	9.6	9.4	9.5	9.5	8.6
운수업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37.5	38.1	36.0	37.4	38.9	35.9	37.7	41.1
	임시직	13.4	13.4	13.3	12.6	11.6	13.6	11.5	10.9
	일용직	4.1	4.5	4.3	4.5	3.6	4.6	4.3	2.9
	고용주	3.0	2.8	2.6	2.0	2.3	2.3	2.3	2.0
	자영자	40.9	40.2	43.0	42.8	42.9	42.8	43.5	42.5
	무급가족종사자	1.1	1.1	0.9	0.7	0.6	0.7	0.7	0.6
숙박 및 음식점업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4.4	5.2	6.1	6.2	7.4	6.3	6.1	8.7
	임시직	31.9	32.0	32.9	33.0	32.9	31.4	33.5	34.7
	일용직	17.8	17.6	16.2	16.7	16.7	17.0	17.1	15.4
	고용주	15.9	15.4	14.3	14.4	14.7	14.7	14.1	14.4
	자영자	17.0	17.5	17.7	16.9	15.8	17.4	16.0	15.6
	무급가족종사자	13.0	12.3	12.8	12.7	12.4	13.2	13.2	11.3
출판영상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70.5	72.5	76.6	76.2	78.1	75.2	76.6	78.8
	임시직	17.1	16.1	13.6	13.1	13.2	12.9	14.0	10.8
	일용직	2.4	3.0	2.1	2.6	2.0	3.4	1.9	2.5
	고용주	4.3	3.2	2.7	2.3	2.6	2.6	2.6	3.7
	자영자	5.5	4.9	4.7	5.7	3.8	5.8	4.7	3.9
	무급가족종사자	0.3	0.2	0.2	0.2	0.3	0.1	0.2	0.4
금융보험업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59.2	56.4	55.4	58.0	60.7	56.3	61.9	60.5
	임시직	33.3	36.1	37.5	35.9	34.9	37.7	33.6	35.1
	일용직	1.0	0.7	0.7	0.8	0.6	0.7	0.5	0.8
	고용주	1.8	1.6	1.2	1.2	1.0	1.0	0.8	1.2
	자영자	4.7	5.1	5.1	4.0	2.6	4.3	3.2	2.1
	무급가족종사자	0.1	0.1	0.1	0.0	0.1	0.0	0.1	0.3
부동산업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26.9	28.1	26.0	26.0	30.1	24.6	28.0	34.4
	임시직	31.4	29.4	31.2	31.1	29.8	33.2	30.0	30.9
	일용직	3.1	3.1	2.6	1.6	2.7	1.3	2.1	1.7
	고용주	6.3	6.7	7.5	7.2	8.1	6.9	7.5	8.3
	자영자	27.2	28.1	27.8	29.0	25.5	28.3	28.5	21.5
	무급가족종사자	5.2	4.6	5.0	5.0	3.8	5.6	4.0	3.1

		2005	2006	2007	2008	2009	2008. 1/4	2009. 1/4	2010. 1/4
전문과학 기술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61.9	64.7	68.2	71.1	74.5	70.0	72.8	74.0
	임시직	16.8	15.9	14.1	11.3	9.4	12.5	10.8	9.6
	일용직	1.9	2.4	2.2	1.5	1.2	1.9	1.4	1.0
	고용주	9.8	7.8	6.9	7.1	7.1	7.2	7.0	6.9
	자영자	8.0	8.1	7.7	8.0	6.4	7.5	6.7	6.9
	무급가족종사자	1.6	1.1	0.9	1.0	1.4	0.8	1.3	1.6
사업시설 관리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42.3	43.2	45.8	46.7	53.3	46.4	49.6	59.0
	임시직	38.5	38.3	35.9	35.5	33.3	35.6	37.3	27.2
	일용직	12.9	13.0	13.1	12.2	8.0	11.8	7.8	7.8
	고용주	2.7	2.5	2.0	2.2	2.8	1.8	2.7	3.3
	자영자	2.8	2.7	2.7	2.7	1.9	3.1	1.9	2.0
	무급가족종사자	0.7	0.3	0.5	0.8	0.7	1.2	0.6	0.7
공공행정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80.8	79.0	78.6	79.1	65.7	82.9	79.4	78.3
	임시직	11.4	14.3	16.3	16.0	31.2	13.5	16.9	20.7
	일용직	7.7	6.7	5.1	4.9	3.1	3.6	3.7	1.0
	고용주	0.0	0.0	0.0	0.0	0.0	0.0	0.0	0.0
	자영자	0.0	0.0	0.0	0.0	0.0	0.0	0.0	0.0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0.0	0.0	0.0	0.0	0.0
교육서비스 업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48.7	48.7	48.8	49.4	50.0	50.1	50.8	52.1
	임시직	29.8	29.6	28.9	28.9	28.9	28.2	28.3	26.5
	일용직	1.6	1.1	1.2	1.3	1.1	1.1	1.1	0.9
	고용주	4.8	4.9	4.8	4.5	4.2	4.5	4.3	4.2
	자영자	13.7	14.1	14.8	14.4	14.4	14.5	14.1	14.8
	무급가족종사자	1.3	1.6	1.6	1.6	1.5	1.6	1.5	1.5
보건업사 회복지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64.8	67.1	68.7	68.2	64.3	70.0	65.8	66.9
	임시직	25.0	22.1	21.1	22.4	26.3	20.8	24.4	24.3
	일용직	2.4	2.4	2.0	1.6	2.2	1.6	2.3	2.0
	고용주	6.5	6.9	6.9	6.7	6.1	6.3	6.6	5.7
	자영자	1.0	1.0	0.8	0.7	0.6	1.0	0.6	0.7
	무급가족종사자	0.3	0.5	0.4	0.4	0.5	0.4	0.4	0.4
예술스포츠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16.0	20.1	23.7	23.9	23.8	24.0	24.1	25.1
	임시직	26.1	26.8	26.0	26.4	26.4	25.1	27.9	26.3
	일용직	14.8	14.4	12.6	12.1	11.3	12.0	9.6	10.9
	고용주	11.9	11.9	10.3	10.3	10.5	9.8	10.5	9.9
	자영자	23.9	20.4	21.9	22.8	23.1	24.5	22.3	23.8
	무급가족종사자	7.3	6.4	5.6	4.5	4.9	4.6	5.6	3.9

		2005	2006	2007	2008	2009	2008. 1/4	2009. 1/4	2010. 1/4
협회 단체 등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18.9	18.8	18.9	19.3	20.9	19.2	20.2	22.4
	임시직	26.5	26.9	27.2	27.6	27.6	28.0	27.3	28.3
	일용직	9.3	9.7	9.8	9.3	10.3	9.2	9.7	9.6
	고용주	6.1	5.9	5.6	5.5	5.1	5.7	5.0	5.3
	자영자	33.3	33.6	33.8	33.3	31.5	32.6	32.9	29.9
	무급가족종사자	5.8	5.2	4.7	4.9	4.7	5.4	4.8	4.5